

2015 광주국제영화제 31개국 103편 상영

필름 속 세계일주 5박6일 영화여행

15~20일 롯데시네마 충장로관·G시네마

문화전당서 개막식...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개막작 러시아 '테스트'...한국계 주인공 참여

2015 광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0일 영화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의 빛,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 라인업을 소개했다.

영화제는 오는 15~20일까지 롯데시네마 충장로관과 G시네마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갖는다.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레드카펫 행사와 함께 이희호 여사가 참석할 가운데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도 열린다.

영화제 상영작은 31개국 총103편(장편 61편, 단편 42편)이다. 개막작은 러시아 영화 '테스트'.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 실험이 이루어진 마을을 배경으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주연을 맡은 한국계 러시아인 엘레나 안은 감독 알렉산드르 코프와 함께 상영관에서 관객과 직접 만날 예정이다.

폐막작은 벨기에 영화 '플라잉 홈'이다. 비둘기가 알라딘의 피신을 도왔다고 믿는 주인공이 세계 비둘기 경주대회를 앞두고 위태롭기라는 비둘기를 손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일부 경쟁 부문(아시아 태평양청년영화상)을 도입한 '휴머니티 비전' 섹션에서는 13~15세

아이들을 이용해 운영하는 파이트 클럽 이야기를 소재로 한 '칠드런쇼', 티벳 승려로 가장해 사기 행각을 펼치는 주인공의 삶을 따라가는 중국 영화 '만다라', 위화의 '허삼관매형'을 영상으로 옮긴 하정우·하지원 주연의 '허삼관'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거장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월드시네마 섹션'에서는 토미 리 존스가 메가폰을 잡고 직접 주연까지 맡은 '더 홈즈 맨', 작고 가난한 베트남 마을 이야기를 그린 '아들들', 부패와 화이트 칼라 범죄를 그린 브라질 루이스 안토니오 페레이라 감독의 '체스게임' 등이 대거 출품된다.

'GIFF초이스'에서는 화가 이중섭을 소재로 한 일본 감독 아츠코 사카이의 '이중섭의 아내', 소설 속 주인공들이 이웃으로 이사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엔 폰테인 감독의 '마담 보바리'를 소개한다.

칸느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로랑 캉테 감독 특별전에서는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시대, 꿈에서 소외 당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폭스피어'를 비롯, '클래스', '인력 자원부' 등 3편이 상영되며 프랑스와 오송 감독의 '리키' 등 화제작을 만날 수 있는 '유럽영화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중국영화 특별전'에서는 아름다운

상 그릴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상그릴라' 등 9편을 만날 수 있다.

'패밀리 시네마', '어린이 극장', '애니메이션 특별전'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섹션이다. '패딩턴', '카르멘', '미스터 위블로', '도라에몽 : 스텐바이 미' 등이 대거 출품된다.

그밖에 호스트 병동 환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 '목숨' 등을 만날 수 있는 '한국영화는 지금', '국내의 단편결작전', '광주국제시민영상전' 섹션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중영화포럼', '중국영화특별전-시네마 실크로드', '글로벌 시네토크-아시아 영화시장 현황과 영화제작 교류협력방안'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또 '이중섭의 아내'의 사카이 아츠코, '진실한 사랑'의 시얼타티 아허푸 감독과 주연배우, 시에 페이 아시아태평양청년영화상 심사위원장 등 30여명의 외국 영화인들이 찾는다.

영화 시간표 홈페이지(www.giff.org) 확인.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부터 이중섭의 아내, 테스트, 윈드랜드.



Gwang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wang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클래식 있는 그림자극 꼬마 관객 신나겠네



광주시향 8일 문예회관...발레 공연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이 관객을 찾아간다. 특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꼬마 관객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통 클래식 연주와 함께 그림자극, 발레 공연이 어우러졌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가정의 달 특별 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보고 듣는 명품 클래식'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1부는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클래식으로 연주 곡목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프로코피에프가 모스크바 어린이 극장 공연을 위해 작곡한 '피터와 늑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작품이다.

어린 소년 피터는 현악기, 새는 플루트, 오리는 오보에, 늑대는 호른, 사냥꾼들은 팀파니 소리로 각각 표현된

다. 이야기는 피터가 할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정원을 빠져나갔다가 숲에 나타난 늑대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클래식 연주와 함께 그림자극이 공연된다. 1982년 창단 후 독일, 체코 등 전 세계 인형극제에 참가하며 꾸준히 그림자극을 올려온 전문 극단 '영'이 함께한다.

2부는 발레와 함께하는 클래식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백조들의 춤이 인상적인 '정경', '마주르카', '에스파냐 댄스' 등을 선사한다. 발레는 광주시립무용단원들이 선보인다.

한편 오후 6시50분부터 대극장 로비에서는 '악기체험하기-목관, 하프 편' 행사도 열린다. 티켓소지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억-사랑노래-어름

봄인듯 여름인듯...꽃인듯 새인듯

DS갤러리 9일까지 이울배전

강렬한 원색으로 동화 속 풍경을 연상하는 화풍을 선사하고 있는 서양화가 이울배씨가 1~9일 광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DS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어서는 화려한 질감의 작품을 선보인다. 색의 번지는 효과를 통해 사물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꽃과 나무, 새, 물고기 등의 사물이 하나를 어우러진 듯한 세계관을 펼쳐보인다.

'기억-사랑노래' 연작을 통해 봄, 여름, 겨울 등 사계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고, 나비와 꽃, 새, 나무 등 어지러진 색채의 향연을 선사한다.

그는 조선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200여 차례 공모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상전, 바다사생대전, 벽골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장을 역임했다. 문의 062-233-391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젊은 인디 뮤지션 콘서트

내일 아포케서...전시회도

젊은 인디 뮤지션들이 꾸미는 콘서트 '나의 입, 너의 귀'가 오는 2일 오후 6시54분 전남대 앞 문화공간 아포케에서 열린다.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과 함께 전시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기획한 이는 한때 랩퍼로 활동했던 정대년이다. 최근에는 랩이 아닌 어쿠스틱 음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 왔다.

이번 공연에는 작사, 작곡, 어쿠스틱 공연 뿐 아니라 뮤지컬 무대에도 서는 자물 이자훈, 두비 김현태, 힙합 레게 뮤지션 D1.B2, 싱어송라이터 푸술 등이 출연. '오, 소크라테스' '장미를 그려요' 등을 들려준다.

또 시각 예술가 탄소 김수정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티켓 가격 7000원. 문의 010-7372-70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대의 '판打志'

풍물연희예술단, 2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일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으로 풍물연희예술단 광대(대표 장호준)의 '판打志(타지)'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신명나는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모든 출연진이 상모를 돌리고 발을 굴러 땅을 다지는 '판굿'으로 시작된다.

상쇠가 머리에 쓴 부포를 흔들거나 돌리는 기술을 보여주는 '부포놀이' 공연과 장구연주자가 나와 역동적이고 화려한 장구기락을 선보이는 '설장구'를 공연한다.

또 접시돌리기가 변형된 '버나돌리기'와 독특한 모양의 팽이인 '죽방울놀이'도 선보이며, 자에 끈을 달아 하늘을 헤집으며 소고춤을 추는 '채상소고놀이' 등으로 이날 공연을 마무리한다.

풍물연희예술단 광대는 전통풍물의 맥을 잇고 질 높은 창작공연을 통해 전통국악예술의 대



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무료이고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오는 9일 토요상설공연은 광주가야금연주단의 '봄을 알리는 가야금 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ah@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